

■ 保 險 實 務 ■

保 險 業 務 上 의 問 題 點

金 化 基

〈光州支部·次長〉

『公信力은 우리의 生命』

이는 保險人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問題이며 또한 몰라서는 아니될 命題이기도 하다.

이는 保險業이 社會的 公信力을 土台로 危險을 사고 經濟的 安定을 約束하는 信用을 파는 事業이라고 할 때 더욱이 切感케 되는 것이다. 保險에서 가장 先端을 걸고있다는 英國의 俗談에 『搖籃에서 무덤까지』라고 保險을 評하듯이 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必須不可缺하게 要求되는 것이 保險이며 또한 本業의 領域이란 가히 全社會요 全人生이라 表現하여도 無妨하리만큼 無盡한 責任 위에 公信力을 支柱로해서 保險人은 活動하고 있는 것이다.

出産, 育兒, 教育, 醫療, 失業, 養老 및 葬禮等 社會保障制度는 勿論 모든 財形의 偶發的인 事故로부터 復元의 保障等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損害保險人하면 保險의 一角에 從事하는 一部分이라고 자칫 過少評價 하기 쉬우나 社會的인 寄與度란 그 責任이 無限히 큰 것이다.

火災保險의 機能 및 效果만 하더라도 첫째로 火災로 인한 財産上의 損失 또는 打擊를 填補하는 個別 經濟的인 利益을 들수 있으며 둘째로 社會的側面에서 보면 火災保險은 損害를 입는 個人의 生産力 또는 企業力을 維持시켜 큰 損害를

작은 支出로서 負擔하게 될 뿐만아니라. 建築方法과 防火設備의 改善等을 促進시킴으로서 國家的次元에서도 功獻되는 바가 크다.

세째로는 經濟的인 側面에서 보았을 때 火災保險의 存在는 經濟社會 全般에 亘한 信用組織의 基礎가되며 企業人으로 하여금 資力以上의 企業活動을 可能하게 하는데 火災保險의 社會經濟的인 큰 意味가 있다고 할수있다.

이러한 點들을 勘案하였을때 保險人으로서 自負와 責任을 새삼스럽게 더욱 느끼게된다. 불이란 人間生活에 하루라도 없을수 없는것으로서 그 恩惠는 測量할수 없을 만큼 큰것이다. 그것이 一但사람의 支配를 벗어나게되면 破壞的인 火災로 되어 큰 災害를 미치게된다.

그러기에 friendly fire 즉 正常的인 火災와 hostile fire 異常的인 火災로 우리는 區分한다. 우리 協會는 hostile fire의 發生 要素를 早期發見하여 이를 未然에 防止하고자 防火安全點檢을 不斷히 實施하고있으며 巨視的으로는 國家財産이 火災로 因해 灰盡되는것을 未然에 防止하는 役軍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보람스러운 存在인 것이다.

우리는 이 무거운 責任을 如何한 狀況下에서도 公信力에 損傷됨이 없이 보람스럽게 맡은바 任務를 完遂하기 爲해서는 研究와 努力이 持續

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一線 保險人이 자칫 범하기 쉬운 病弊를 簡略 하게 列擧하여 본다.

“첫째” 보험자측에서 보았을때 保險者는 保險料의 收入增大를 위해 被保險價額을 過大하게 評價하여 被保險者로 하여금 射倖心을 勸戟하여 賭博的인 保險契約을 誘發시키는 境遇를 操心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罹災時에는 超過保險이란 울가미를 씌우므로서 公信力에 莫大한 損傷을 입히는 行爲等은 極히 警戒하여야 하는 病弊의 行爲 임을 看過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被保險者側에서 보았을때

(1) 保險金詐取의 目的으로 被保險者가 故意로 放火와 같은 事件을 發生 시키는 境遇와 事件의 發生을 假裝 或은 偽證하는 事例等 虛偽 申告로서 事實을 隱蔽하는 告知義務의 違反等 非道德的인 行爲를 들 수 있으며

(2) 保險加入으로 將來의 經濟的保障을 얻음으로서 自己 財産에 對한 保護를 소홀히하고 放心하여 事故의 發生을 誘發시키는 境遇가 있고 또는 火災와 같은 事故發生의 事實에 對하여 適切한 防衛措置를 取하지 않음으로서 損害防止의 義務를 소홀히하는 行爲等이 있다.

以上の 事項은 一線 保險人으로서 가장 注意 깊게 銘心하여야 할 事項中의 一部라 생각된다. 一線 實務者가 아무리 努力하여도 自己能力의 限界點 또는 自己力量의 範疇밖 에 屬하여 아무리 研究하여도 解決하지 못하는點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列擧하여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1) 金屬工場과 附屬倉庫料率

保險料率이 偶發的인 事故集團의 總數中 對比 假想危險發生 件數를 勘案하여 危險發生測定值를 千分率로 表示한다고 하였을때 基礎的인 問題로서 危險度가 높은 物件은 料率이 高率이고 反對給付의으로 危險度가 낮으면 料率도 낮은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近間에 金屬工場料率이 引

下되어 4級料率이 4.34/ 원인데 反해 當該 工場의 附屬倉庫는 一切의 作業도 없는데도 4級倉庫가 9.50/ 원을 받는다는것은 조금은 問題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2) 耐火構造의 定義

保險契約締結에 있어 1級物件과 2級物件料率의 差異란 大體的으로 1級物件에 對比 2級物件은 1.6 배에 該當되는 保險料의 負擔이 加重되게 되는바 保險料率書中 建物에 관한 規定內의 1級物件이란 반드시 耐火構造여야 되고 耐火構造의 定義中 지붕은 반드시 철골 철근「콘크리트」造라야 된다고 明示가 되어 있다.

建築法 2條 9號나 同施行令 92條上으로는 지붕구조가 鐵骨造 지붕틀로서 그直下에 반자가 없는것 또는 直下에 不燃材料로된 반자가 있는것도 耐火構造라 明示되어 있고 (保險料率書上으로는 本物件은 2級에 該當되는 것임) 기관 제 106號(1976. 5. 10)의 通報文書中 建築事項의 處理方案으로서는 『鐵骨造 지붕틀로서 지붕틀의 下端까지의 높이가 4m를 넘는 境遇에는 同構造를 耐火構造로 본다.

다만 可燃物의 集積으로 耐火性を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는 認定하지 않을수도 있다』라는 要旨인바 以上과 같이 애매한 定義로 點檢에 臨하는 建築技士가 耐火構造로 認定 1級으로 建物を 査定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契約課에서는 料率書에 依據 2級으로 契約하는 例등이 있다.

(3) 法律 第 2482 號와 約款上의 問題點

新法은 舊法에 于先하고 特別法은 母法에 앞선다는 法趣旨은 十分 納得이 된다.

本法 2條 3項이나 令 2條로서 特殊建物에 對한 定義는 正確하게 明示되어 있으나 令 2條 10項으로서 學校災害復舊共濟會에 加入된 物件만은 概契約權을 認定하여 本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물론 普通保險約款의 效力이 同法에 앞서서 有

權的인 영향을 미칠수는 없다고 하여도 現行 通用되는 證券上의 約款에 有效하게 明示가 되어있는 限 對外的인 公信力에 미치는 영향을 勘案하여 尠히 問題가 없는것은 아니다.

約款 第19條『保險의 目的에 對하여 이 契約과 같은 때 또는 다른때에 締結한 다른 契約(農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火災共濟契約을 包含합니다)이

있을 境遇에 總保險金額이 保險의 目的의 價額을 超過할 境遇에 이 契約의 保險金額의 總保險金額에 對한 比率에 따라 損害를 補償합니다』以上과 같이 法으로서는 認定도 되지않는 違背事項이 嚴存 使用中이며 約款上으로는 當然히 農協共濟會의 契約上의 效力을 認定하고 있는것이 題問點인 것이다.

= 수필 =

어느날 오후

點檢三部 金 一 河

몇일전 마사한 年後.

오랫만에 봄날씨 같은 포근함에 살며시 졸음이라도 찾아올 그런시간에…… “밀린 業務도 대충 정리했으니 發表할날도 몇일 남지않은 NFPA CODE 번역이나 마무리 지어야지”

나는 오랫동안 下午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때 조용히 한 老紳士께서 앞자리의 S代理에게 닥아선다. 흰 머리카락과 잘 손질한 콧수염이 조화되어 상당한 위엄을 풍기는 분이였다. “여기가 화재보험협회 點檢三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일로 오셨습니까?” 늘 친절과 미소로 모든 직원들에게 인기만점(?)인 S代理는 일어서면서 용건을 묻는다.

“저는 乙支路에 Y빌딩을 갖고 있는데 얼마전에 확인 點檢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매우 불쾌한 表情을 지으면서 老紳士께서는 서두를 꺼내신다.

“이리로 좀 앉으십시오” S代理는 소파를 권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떤 내용이신지 들려주시죠?” “내 건물은 조그마한 4층 건물인데 消火器가 하나도 없었지요. 協會에서 點檢後 消火器를 비치하라고 해서 그대로 履行을 했는데 몇일前 확인 點檢인가 하는것을 두 사람이 다녀간후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우송되어 와서 봤더니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老紳士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짐짐 결과 보고서를 꺼쳐다 본다. “點檢者가 누구입니까?” “예, 김××와 이××이군요” “지금 그 직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다른 담당자와 말씀을 나누어 보지요”

S代理는 나에게 설명을 해드리라고 하며 보고서를 서류함에서 찾아 건네준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인사를 건넨후 보고서를 훑어보면서 어떻게 쉽게 이분을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선생님 건물은 1층이 가구점, 2층이 당구장, 3층이 사무실, 4층이 살림집으로 되어 있군요?” “그것이 消火器와 무슨 상관이 됩니까?” 老紳士는 빨리 잘못을 是認하라는 투로 다구쳐 묻는다.

오늘도 一線의 實務者는 『火災保險 普通保險 約款 및 特約條項을 承認하고 아래와 같이 保險 契約을 請約함』이란 前提下의 請約書의 提示에 保險契約者와 保險契約을 締結하고 있다.

問題는 어디까지나 有償雙務契約이라고 보았을 때 무엇인가 時急히 是正할 問題가 없는지 考察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以外에도 一線實務者의 周圍에서 問題點은 恒

常 membership 마련이나. 그러기에 배우고 努力하며 自己自身の 價値觀을 確立하고자 不斷히 努力하게 되는것이 즉 自身이라고 하겠다.

『아버이는 자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하지 때려서는 가려운 곳이 가지지 않는다』는 나의 자행관(自行觀)을 되새기면서 나의 任務를 쫓아 한걸음 한걸음 正直하게 걸어가고자 한다.

(끝)

“그런데 선생님 건물에 현재 놓여있는 消火器는 전부가 B, C級 粉末消火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點입니다. 消火器에는 泡沫, 粉末의 2種類가 있는데 선생님의 건물은 用途로 보아서 泡沫 또는 ABC級 粉末消火器를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BC級 末粉消火器가 비치 되어 있기 때문에 用途上適應性이 맞지 않아서 認定이 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건물은 火災의 分類上 一般火災에 속하는데 현재 비치된 消火器는 油類火災用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 點檢보고서에도 分明히 泡沫 또는 ABC 級粉末消火器를 層別로 1개씩 비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老紳士는 주머니에서 眼鏡을 꺼내서 報告서를 훑어본다.

“그러면 一般火災란내면서 이럴수가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S代理를 무엇이며 우리집 消火器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있니까?”

老紳士는 매우 답답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본다.

“이것을 좀 보시지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一般火災란 木材, 섬유類, 종이 등의 火災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로써 불을 끌수 있는 火災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油類火災는 물로써 끌수 없지 않습니까?”

老紳士는 協會의 弘報用 팜플렛을 드러다 보시더니 약간은 理解가 간다는 듯한 얼굴로 “우리가 뭘압니까? 消火器를 비치하라고해서 아무 것이나 갖다 놓으면 되는줄 알았지.” 하시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힘없이 반문을 한다.

나는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 처럼 미안한 마음이 드는것을 애써 감추며 “포말소화기가 가격면에서 粉末보다 싸입니다. 바꾸어 보시지요. 사진곳에 가서서 잘몰라서 그렇게 된것이니 양해를 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老紳士께서는 眼鏡을 벗어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후 사무실을 나가신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기술문의 대장에 사함을 기재하면서, 늘 하던소리로 다시 한번 뇌짚인다. “어려운 기술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어느덧, 맑은 날씨는 구름이 짙게 끼어 눈이라도 내릴듯이 변해버렸다.

“내일은 날씨가 추워져서 點檢하기 힘들겠는데.” 옆자리의 방금들어온 직원이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밖을 내다본다.